

현 중3 수능, 문·이과 통합...수학·국어 '공통+선택' 안 검토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포럼
과학II 2021년부터 출제 제외
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전환
선택 과목간 유·불리 다룬듯
다음달 출제범위 최종 결정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에서 수능영역을 기존 가나형 분리출제 대신, 공통과목과 필수선택으로 출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과생이 수학 가형을, 이과생이 수학 나형을 치러 오던 기존 방식 대신, 문·이과 구별없이 공통수학 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변경되는 안이다.

공통형 수학 출제로 문·이과 통합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수능 과목 구조가 복잡해지고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총담대에서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출제범위 논의를 위한 대입정책포럼을 열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수능 과목구조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교육부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수능 개편안을 발제한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는 출제범위가 늘어 학생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고, 문·이과 통합이라는 새 교육과정 취지와 공교육 정상화 필요성을 고려해 개편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국어영역의 경우 공통과목과 필수선택

과목으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어 공통과목 범위는 독서, 문학이다. 여기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가운데 1개를 필수적으로 선택해 시험을 보게 하는 방안이다.

2021학년도 수능을 볼 현 고1 학생들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 4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2022학년도 수험생의 부담은 다소 줄고 선택권이 강화되는 셈이다. 기존 4과목 대신 공통 2과목에 선택 1과목만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안은 수능 과목 구조가 복잡해지고, 선택 과목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수능영역 역시 사실상 문·이과를 나눈 '분리출제' 형식을 버리는 대신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으로 이원화하는 안이 나

왔다.

공통과목 출제범위는 수학 I과 수학 II이다.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가운데 반드시 1과목을 택해 응시하는 방안이다.

2021학년도 수능의 경우 자연계열에 진학할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 출제범위는 수학 I,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다. 인문사회계열 희망자들이 치르는 수학 나형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에서 나온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수험 부담은 기존과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문사회계열 희망자는 확률과 통계, 자연계열 희망자는 미적분을 택하게 돼 사실상 분리출제와 비슷한 양상이 될 수 있고, 자연계열 희망자의 수험부담이

인문사회계열 희망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수능영역 역시 선택과목이 생기면 과목 간 난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문제도 생긴다.

탐구영역은 문·이과 통합을 위해 사회 9과목 가운데 1과목, 과학 I 4과목 가운데 1과목씩을 선택해 치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학II(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는 2021학년도부터 출제에서 제외된다.

사회 I과목과 과학 I과목은 모든 학생이 이수하게 돼 있으므로 별도의 수능 준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직업계고 학생은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5개 계열(농·공·상·해양·서비스) 과목 등 6개 중 1개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해 논의됐던 통합사회·통합과학은 포함하지 않게 됐다. 융합형·체험형 교육을 하는 이들 과목의 특성상 수능에 포함할 경우 교육의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는 학교현장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점을 없애고자 절대평가로 전환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과 전문가, 고교 교원 등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능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 관련해 논의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는 서면으로 공식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부는 오는 8월말 수능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를 최종결정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선대 학생들이 '2018학년도 제15회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장정을 시작했다.

(조선대 제공)

조선대 국토대장정단, 10박11일 263km 도전

51명 한라산 등반·제주 일주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는 최근 본관 앞에서 '2018학년도 조선대학교 제15회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강동완 총장, 이인화 취업학장, 김성중 대외협력처장, 강상원 총무처장, 최성희 학생지원부처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참석, 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대원 51명이 10박 11일간 263.5km를 걷는다. 참가자들은 조선대를 출발해 목포항으

로 이동해 배편으로 제주도에 향한다.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등정 및 제주 일주, 고흥 녹동, 나주를 거쳐 학교에서 해단식을 갖는다.

출정식에서 강동완 총장은 "미래 시대에 필요한 소양 가운데 하나가 도전정신이며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미 기본 소양을 갖췄다"며 "힘이 들 때 서로 응원하고 격려로 용기를 불러 일으켜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대원을 모두가 한명도 남오 없이 무사히 완주하고 돌아오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창업동아리, 작두콩 미용제품 개발

지난해 동강대 뷰티미용과 창업동아리 '뷰티판도라' 팀이 창업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작두콩을 이용한 두피 클렌저 아이템 개발에 나섰다. '뷰티판도라' 팀은 지난해 연말 '창업 아이템 성과 경진대회'에서 시제품을 공개해 대상을 받았고 특허 출원도 했다.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청년창업가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

동강대 창업지원단(단장 임승우)은 최근 산학협력관 4층 청룡홀에서 '2018년 대

학생 창업아카데미 지원 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를 열었다. 동강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을 잡고 '창업아카데미 지원 사업'을 펼치며 예비 CEO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동강대는 올해 오가닉(보건행정과), 두바퀴(토지정보관리과), 지누리(전기전자과), 뷰티판도라(뷰티미용과), 년취난장(호텔관광과), S.I.T(호텔관광과) 등 8개 창업동아리에 아이템 개발비와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유럽 5개국 역사·문화 탐방

동신대학교
2018학년도 하계 해외연수
기간: 2018년 6월 30일(토)~7월 13일(금) 연수지: 러시아, 핀란드, 발틱3국

동신대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유럽 해외 학술연수가 14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진>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는 "유럽 5개 나라의 역사와 문화, 풍습을 경험하며 자기 계발 기회를 갖는 2018학년도 하계 해외 학술연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재학생 30명과 교직원 6명이 지난 달 30일 출발해 오는 13일까지 14일 동안 러시아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돌며 각 나라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한다.

또 현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문화와 풍습, 언어 체험의 기회를 갖고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역량을 키운다.

동신대는 학생들이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해외 연수 일정을 직접 짜도록 했다.

학생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조별 모임과 간담회를 통해 자신들이 방문할 나라와 도시의 역사, 문화, 생활양식을 조사·발표하며 기준에 잘 알려진 지식 외에 새로운 탐방 장소를 발굴했다. 새롭게 발굴한 곳에 대한 설명도 현지에서 자신이 직접 하도록 했다.

연수를 마친 뒤에는 14일 동안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책으로 묶을 예정이다.

해외 학술연수 단장을 맡은 김수근 학생취업지원처장(운동처방학과 교수)은 "학생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한 창의적인 연수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폭 넓은 지식을 쌓고 현지인들과 직접 교류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회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 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특허공법

펜션건물 맞춤형 시공 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반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 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전남 (062)511-0444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